

서울정책포커스

2007. 9. 10 제42호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에 따른 서울시 도심부의 발전방향

김선웅(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1. 문제의 제기
2. 도심부의 여건진단
3. 도심부의 과제 및 비전
4. 4대축별 기본구상 및 주요 사업
5. 후속계획 및 기대효과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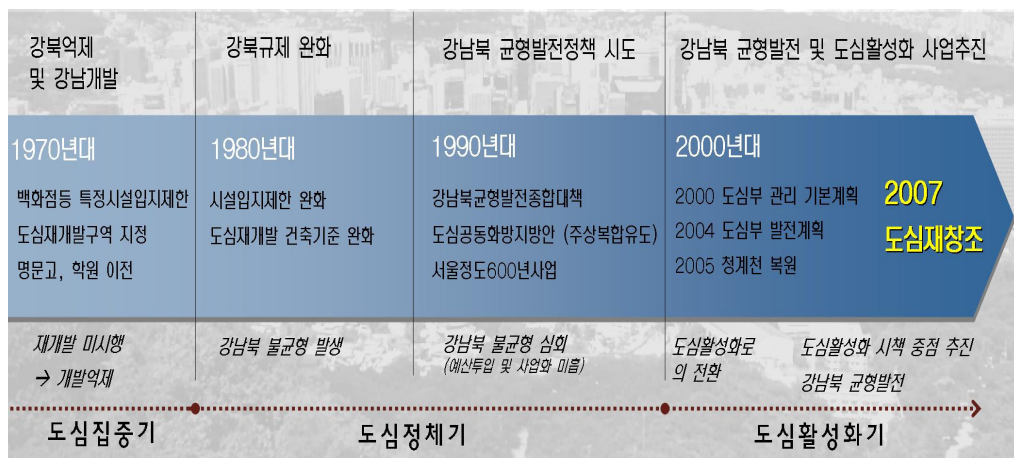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도시 간 경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 대도시들은 도시 경쟁력의 강화 차원뿐만 아니라 자원절약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심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서울의 도심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강북억제정책 추진과 강남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그 위상이 약화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남부의 광범위한 개발에 따라 대도시권 공간구조가 강남 중심으로 편중되는 불균형된 다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강남으로 편중된 공간구조를 시정하여 균형된 대도시권 다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여 강북 발전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의 도심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청계천 복원 이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도심부 전체로 파급 확산시키기 위하여 도심재창조 사업들을 구상하고 이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에서는 도심부의 미래비전을 ‘세계와 만나는 글로벌 서울의 중추로서 600년 역사의 품격과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심’으로 설정하고 5대 목표(세계와 경쟁하는 도심,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의 도심, 역사와 전통의 도심, 미래를 선도하는 도심)를 선정하였다. 도심재창조의 추진전략은 도심의 주요 거점들을 정비하고 이 거점들을 중심으로 남북 4대축(①역사문화축: 북악산 ~ 경복궁 ~ 서울광장 ~ 송례문 ~ 서울역 ~ 남산, ②관광문화축: 북촌·삼청동 ~ 인사동 ~ 을지로 ~ 명동 ~ 남산, ③녹지문화축: 창덕궁·창경궁 ~ 종묘 ~ 세운상가 ~ 남산, ④복합문화축: 대학로 ~ 홍인지문 ~ 동대문운동장 ~ 장충단공원 ~ 남산)과 남산(도심, 용산, 한강으로부터 남산으로의 접근로 등)을 정비하여 동서축에 집중되어 있던 도심의 활력을 도심부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 4대축과 남산에 대하여 축별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도심재창조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서울의 도심에 새로운 명소들이 탄생되고 도심의 국제화, 관광화, 친문화, 첨단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어, 서울의 도심은 600년의 역사성과 다양한 기능 및 형태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걷고 싶은 거리와 매력적인 생활공간이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속의 경제와 문화의 교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 세계도시의 변화 : 자원절약형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간 경쟁시대
 - 세계의 도시들은 교외화 및 신도시 건설 등에 의한 도심기능의 외곽 분산으로 도심이 쇠퇴함과 동시에 대도시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심재생을 통해 자원절약형 도시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
 -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국가 의미가 퇴색되고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서 도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세계 도시들은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등 도시의 자원화를 추구하고 있음.
- 서울 도심 정체의 극복과 경쟁력 확보
 - 서울은 70년대 이후 도심억제정책에 따라 도심의 위상이 저하되고, 강남편중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의 도시공간구조가 왜곡되고 있음. 따라서 도심의 위상을 강화하고 강북 발전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대도시권의 다핵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도심부 관련 서울시 정책의 변화>

- 청계천 복원 이후 증가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기회로 편리한 공공(대중)교통수단의 개발, 공공공간(보도, 공원, 광장)의 충분한 확보,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유도함으로써 도심 전체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함.

2. 도심부의 여건진단

○ 도심부의 현재여건 진단

- **역사자원 복원 미흡 및 접근성 취약** : 도심의 풍부한 역사자원은 원형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그간 도심부의 역사자원에 대한 복원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복원사업의 특성 상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국제화·정보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도시기능** :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기능을 공급하는 주요수단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지연으로 도심기능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도심 고유의 전통상업기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재래시장의 환경 노후화와 재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도시경쟁력의 저하를 야기함.
- **특성화지역 환경개선 미흡** : 명동, 인사동 등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곳의 관광객은 증가하는 반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 환경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독특한 고유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의 특성을 유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의 편중과 부족** : 도심부 내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은 인사동과 정동일대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궁 등을 제외한 실제 공원 녹지는 도심부의 활발한 보행활동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보행단절 및 연계미흡** : 도심부는 자동차 위주에서 대중교통 및 보행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주요명소 간 보행연계가 부족하고, 남북방향 주요가로의 보행연결과 도심의 대규모 중요한 휴식공간인 남산으로의 보행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가로활력의 저하** : 도심부 가로는 전반적으로 보행시설과 휴식시설이 부족하며 보행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가로활성화 용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함. 현재 활력 있는 도심의 가로는 주요명소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활력이 침체되어 있는 가로는 많은 실정임.

○ 청계천 복원 이후 도심부의 긍정적 변화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가시화** :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에 위치한 미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의 지가 및 토지거래량이 대체적으로 상승함으로써 미시행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
- **도심산업구조의 점진적 변화** : 청계천 주변 건축행위 분석결과, 기계·공구 등 산업관련 점포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며, 식음·소매 등 판매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증가함에 따라 도심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교통량 감소** : 도심 유출입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주요명소를 중심으로 도심보행의 증가** : 2003년에서 2006년의 3년간 청계

천을 따라 보행량이 2~6배 증가하는 등 청계천 복원 이후 도심부의 보행활동이 주요명소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심부 거점정비 및 환경개선과 청계천 복원 후 활력을 활용한 도심부 활성화 필요
 - 청계천 복원 이후 나타나는 도심유입인구 및 보행량 증가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가로활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축물의 용도 변화를 유도하고 환경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심 주요 거점의 활성화를 도모함. 이와 동시에 거점간 연계강화를 통하여 주변 지역으로 파급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심부 활성화를 도모함.

3. 도심부의 과제 및 비전

- 도심활성화를 위한 과제
 - **도심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 : 자칫 훼손될 수 있는 도시의 역사성과 도시의 고유특성을 보전하고 회복하여 600년 고도의 문화적 품격을 고양함으로써 도심경쟁력을 위한 자원화가 되도록 함.
 - **도심 경제활력 강화** : 서울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표출된 도시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재생방안을 모색함. 디자인, 관광, 금융, 보험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서울의 재도약과 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임.
 - **창조적 미래형 도시 추구** : 세계화, 정보화, 자원화, 기술혁신 등 세계 도시들의 미래변화를 수용하여 세계 속의 중추도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전략적 개발프로젝트 발굴** : 광장, 공원, 보행공간 등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활력을 위한 공간의 확충사업, 매력 있는 건축물의 건립,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함.

○ 도심부의 미래비전

- 2004년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되,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며 도심정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재창조의 미래비전을 “세계와 만나는 글로벌 서울의 중추로서 600년 역사의 품격과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 쉬며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심”으로 설정함.

○ 도심재창조의 목표

- 도심재창조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세계와 경쟁하는 도심 | 디자인, 패션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국제도시 기반강화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 | 도심명소 창출로 관광도시 위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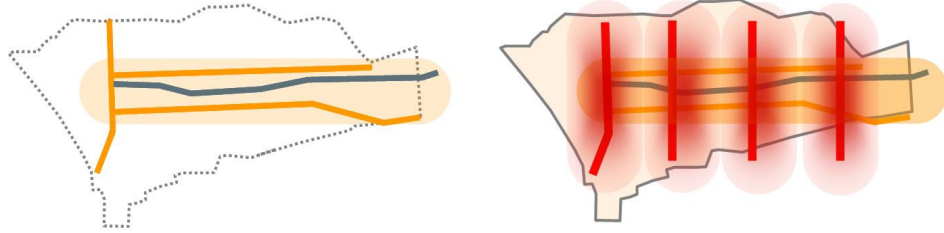
쾌적한 환경과 경관의 도심 | 거점녹지와 연결녹지축의 복원, 환경도시 및 경관도시 구현

역사와 전통의 도심 | 600년 역사문화자원의 지속적 복원

미래를 선도하는 도심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

○ 도심재창조의 추진전략

- 종로, 을지로, 청계천 등 기존 동서축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축과 주요거점을 정비함으로써 도심활성화의 파급효과를 도심부 전체로 확산시킴.
- 부문별 개별사업 위주 또는 선도사업 위주의 접근이 아닌 지역별 특성 강화와 지역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함.



현재 동서 중심 | 지역간 연계 미흡

청계천 복원사업

도심재생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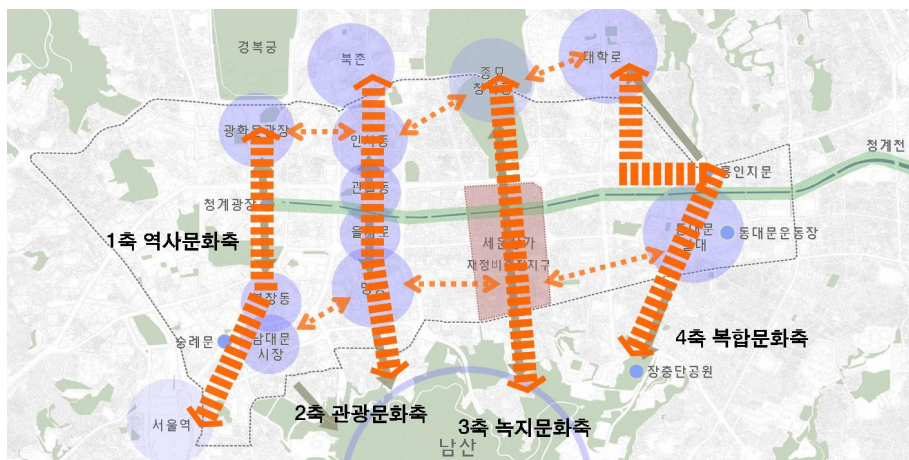
미래 동서축 + 남북 4대축 → 도심 전체 활성화

종합적 도심재생사업

도심활력의 회복 및 지속적 성장

<도심재창조의 추진전략>

- 도심의 주요거점과 명소를 중심으로 연계되는 남북 4대축을 설정하고 남북축 및 거점정비 추진으로 도심부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함.
- 1축 : 북악산~경복궁~서울광장~송례문~서울역~남산
- 2축 : 북촌·삼청동~인사동~을지로~명동~남산
- 3축 : 창덕궁·창경궁~종묘~세운상가~남산
- 4축 : 대학로~홍인지문~동대문운동장~장충단공원~남산



<도심활성화를 위한 남북 4대축 설정(1)>



<도심활성화를 위한 남북 4대축 설정(2)>

4. 4대축별 기본구상 및 주요 사업

1) 도심 1축 : 역사문화축

-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축 조성
 - 도심 1축은 경복궁에서부터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국가상징가로로 서 역사성 및 상징성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또한, 도심의 명소이자 전통상업공간인 북창동과 남대문시장 및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일대에 대한 환경정비방안을 검토함.
 - 경복궁에서부터 서울역에 이르는 국가상징가로의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함.
- 주요사업 : 광화문광장 조성, 서울시 신청사 건립 및 주변 지하공간 네트워크 보완, 북창동 관광특구 활성화, 남대문시장 관광특구 활성화, 서울역 광장 재편



○ 주요사업별 기본구상

- **광화문광장 조성** : 세종로 일대는 600년 고도의 중심가로이자 정치, 행정, 업무가 집결된 국가핵심가로임. 이러한 세종로 중앙에 폭 34m의 보행자를 위한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도심의 역사문화명소로 재탄생시킴.
 -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광장 조성
 - 경복궁을 향한 감동적 조망 조성
 - 청계천 방문객을 경복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보행체계 개선
 -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있는 열린 공간 마련
 -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 **북창동 관광특구 활성화** : 예로부터 음식점으로 특화된 북창동의 장소적 가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음식거리와 같은 시범 테마가로 및 다목적광장을 조성함으로써 북창동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킴.
 - 관광특구에 적합한 특화용도의 계획적 유도

- 불거리 있고 활력 있는 가로환경 조성
- 내부 골목길 정비 및 차없는 거리 지정
- 주요지점의 공동개발 유도로 공공시설 확보



<광화문광장 조감도>



<북창동 관광특구 활성화 구상도>

- **남대문시장 관광특구 활성화** :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래시장이면서 관광명소인 남대문시장의 장소·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고 환경정비 지연으로 인하여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환경정비를 추진함.
 - 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정비 추진
 - 다양한 정비수법을 고려한 종합계획 마련
 - 주변 명소와의 연계 및 관광활성화 시설 확충

2) 도심 2축 : 관광문화축

- 역사와 전통, 첨단공간이 공존하는 매력 넘치는 관광문화축 조성

- 도심 2축은 북촌, 인사동 등의 전통공간과 명동, 관철동 등의 상업공간이 각

각 도심의 명소로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이지만, 이러한 명소간의 연결과 환경수준이 미흡한 부분도 나타남.



- 따라서 단절되고 점적인 서울의 명소를 연결하고 각 명소의 고유특성을 살리는 환경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매력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도심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함.
- 주요사업 : 북촌·인사동 역사문화보존 경관계획 수립, 낙원상가 정비, 걷고 싶고 편리한 보행체계 구축, 도심부 U-city 기반조성, 명동 관광특구 특화가로 조성
- 주요사업별 기본구상
 - 북촌·삼청동·인사동 명소 가꾸기 : 도심전통주거지로서의 북촌과 최근 갤러리, 패션, 음식 등 다양한 문화가 특화된 삼청동, 전통문화거리 인사동 등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명소를 보존하고 지속적인 명소 가꾸기를 추진함.
 - 삼청동 :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명소 가꾸기 추진

- 북촌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명소 가꾸기 추진
- 인사동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명소 가꾸기 추진
- **낙원상가 정비** : 낙원상가는 4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안전문제가 우려되며 남산조망을 차단함으로써 주변 역사지구간의 단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로기능에 부하를 미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환경정비 방안을 검토함.
 - 낙원상가에 의해 단절된 남산 조망축 회복
 - 도심 남북을 연결하는 삼일로 도로기능의 회복
 - 인사동, 파고다공원, 운현궁 등 주변 역사지구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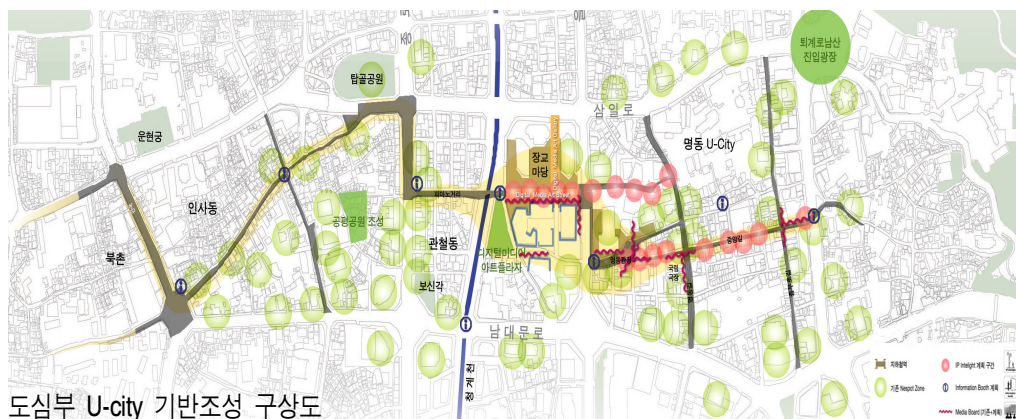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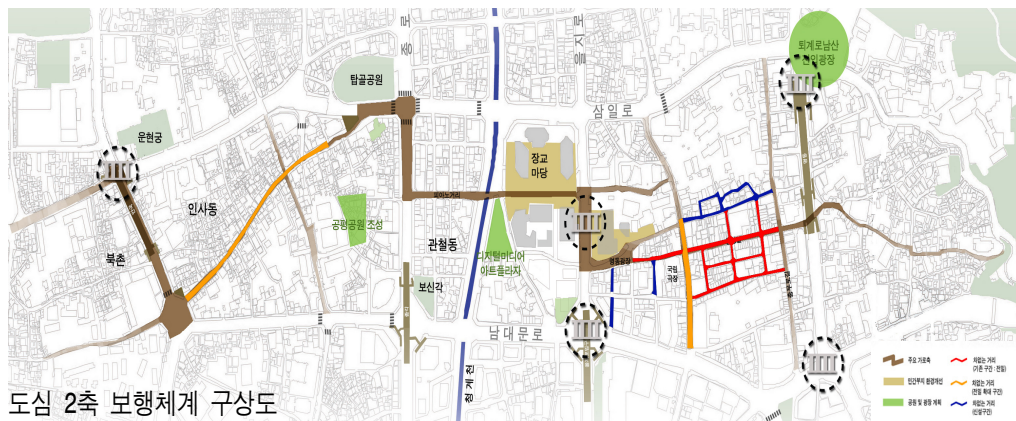


<낙원상가 철거 전>

<낙원상가 철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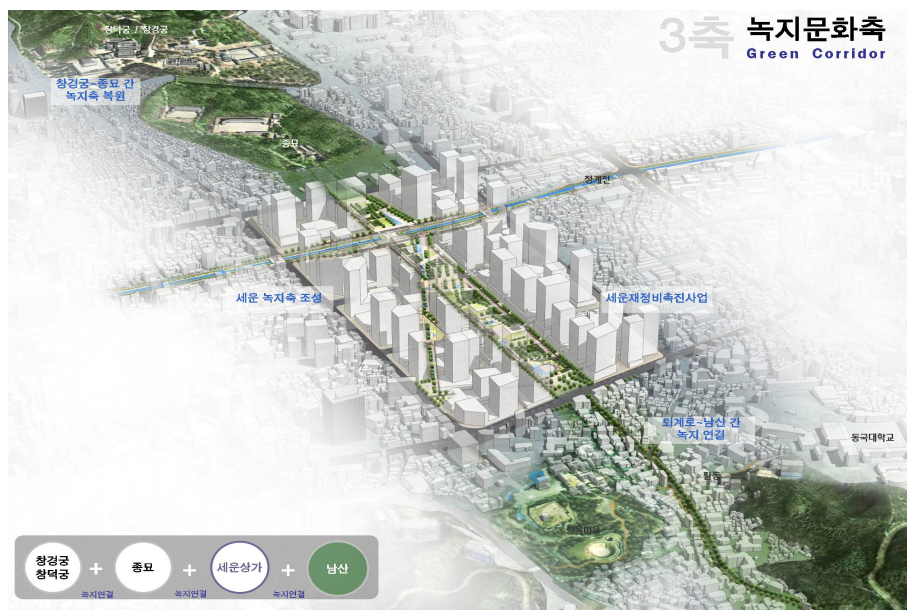
- **걷고 싶고 편리한 보행체계 구축** : 단절되고 점적인 도심 2축의 명소들을 보행으로 연결하고 가로환경 개선 및 차없는 거리 확대 지정 등을 통하여 도심활력의 파급과 연계를 극대화시키고자 함.
 - 보행환경개선 : 차없는 거리의 확대시행, 횡단보도 신설, 노외주차장의 보행광장 조성, 교통섬의 보행광장 조성
 - 가로환경개선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공원녹지 조성, 지구단위계획의 가로환경개선사업

- 도심부 U-city 기반조성 : 첨단기술의 체험공간을 기성시가지인 도심에서 구현함으로써 IT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기존 도심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통하여 관광 서울의 위상을 강화함. 첨단 정보, 디지털 아트, 휴식 등이 복합된 매력 있는 도심 명소를 조성함.
- 언제, 어디서나 양방향 정보교류가 가능한 첨단 U-도심 조성
- 을지로 일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명소 조성 : 스트리트, 플라자, 갤러리
- 민과 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의한 미래지향적 공간 구현
- 첨단기술의 체험공간 구현으로 관광 서울의 위상 강화



3) 도심 3축 : 녹지문화축

- 창경궁, 종묘~남산을 녹지로 연결하여 남북 그린네트워크 회복
 - 도심 3축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북측으로는 창경궁과 종묘, 남측으로는 남산이 위치함. 서울시의 장기 도시계획 과제인 남북녹지축 조성을 위하여 세운녹지축을 조성하고 녹지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함.
 - 남북녹지축 조성과의 연계하여 세운상가 일대의 노후되고 정체된 시가지를 정비함으로써 도심기능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함.
- 주요사업 : 세운녹지축 조성, 창경궁~종묘 간 단절구간 복원, 퇴계로~남산 간 녹지연결



○ 주요사업별 기본구상

- 세운녹지축 조성 :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의 한강 수경축과 남북

육경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심의 남북녹지축을 회복함. 이와 더불어 세운상가 일대 낙후지역의 개발로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북한산~종묘~남산~용산 미군기지~국립묘지~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육경축 조성
- 청계천 수경축 및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화
- 도심 내 부족한 공원과 녹지를 공급하고, 시민들의 휴식 및 산책 공간 제공

- **창경궁~종묘 간 단절구간 복원** : 창경궁과 종묘는 일제의 율곡로 건설에 의해 단절된 이후 육교를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함. 율곡로의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북녹지축 완성을 위하여 율곡로에 생태녹지 건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일제의 율곡로 건설로 단절된 창경궁~종묘 간 녹지 연결
- 문화재청의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

- **퇴계로~남산 간 녹지연결** : 추진 중인 세운녹지축과 남산 간 연결로인 서애길에 보행녹도를 조성하여 남북녹지축을 완성하고, 인지성이 떨어지는 남산한옥마을 진입부에 보행 및 관광차량의 접근 통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킴.

- 세운상가~진양상가의 거점녹지를 남산과 연결하여 남북녹지축 완성
-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남산 이용 및 주변 명소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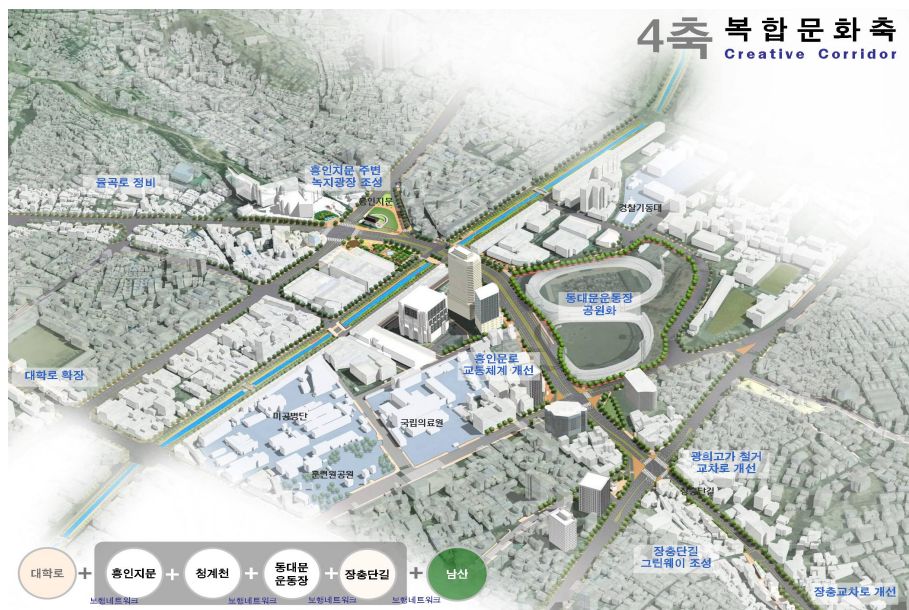
4) 도심 4축 : 복합문화축

○ 역사문화, 공연문화, 패션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축 조성

- 도심 4축은 대학로의 공연문화, 동대문일대의 패션문화, 장충단길과 남산으

로 이어지는 녹지문화 등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축 전체를 대상으로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함.

- 동대문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패션디자인 지원시설 및 문화이벤트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주변지역과 단절된 흥인지문 일대의 개선을 통하여 도심의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을 창출함.
- 주요사업 : 대학로~동대문운동장~남산 간 보행체계 정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흥인지문 주변 공원화, 대규모 이전예정지의 도시계획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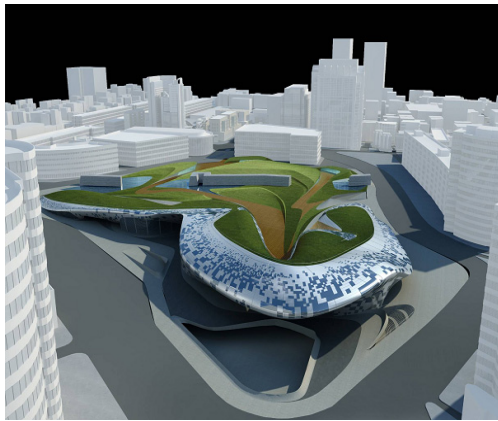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기본구상

- 대학로~동대문운동장~남산 간 보행체계 정비 : 대학로, 장충단 벨트 등 주변 문화명소 간 연결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함. 또한, 보행량에 비해 협소한 보도와 휴식공간 부족 등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함.

- 대학로 도심진입구간 도로확장 및 보행환경 개선
 - 율곡로 보행로 정비 및 가로활성화 유도
 - 흥인문로 교통체계 개선 및 보도확장
 - 장충단길 그린웨이 조성 및 교차로 개선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동대문운동장 부지를 문화이벤트 공간의 조성 및 랜드마크형 디자인산업 지원시설의 건립을 통해 세계적 디자인·패션 명소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심미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하여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을 선정함.
- 월드디자인파크 :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 서울성곽의 일부 복원을 통하여 역사성 회복
- 월드디자인플라자 : 디자인산업 지원시설 및 다목적 전시컨벤션홀 등 배치
 - 지하공간 활성화 : 만남의 광장, 전시공간 등의 조성과 지하 보행네트워크 구축
- **흥인지문 주변 공원화** : 주변 도로에 의해 단절된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인 흥인지문 일대에 오픈 스페이스 조성을 통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대학로, 동대문 등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새로운 도심의 명소로 탄생시킴.
- 흥인지문 주변 보행광장 및 녹지광장 조성
 - 동대문종합시장 전면 주차장 부지에 광장 조성
 - 종로 북측 교차로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 이대동대문병원 부지의 공원화
- **대규모 이전예정지의 도시계획적 관리** : 동대문 일대의 대규모 이전예정지의 개발을 별도의 계획을 통하여 종합적·계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도심 필

요시설을 도입하고 청계천 및 동대운운동장 일대와 연계하여 도심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

- 대상부지 : 미공병단, 훈련원공원, 국립의료원, 경찰기동대, 이대동대문병원
-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방향, 유치 및 권장용도 설정



<국제현상설계공모 1등 당선작: 한유의 풍경(자하 하디드)>



<홍인지문 주변 공원화 조감도>

5) 열린남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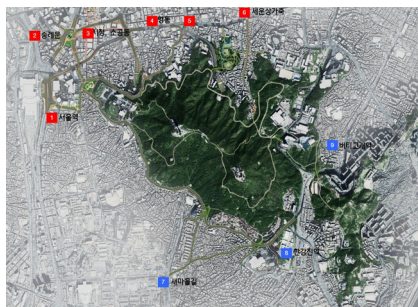
- 걸어서 다갈 수 있는 남산, 도심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남산 만들기
 - 도심 근처에 위치하면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서 시가지 조망이 가능한 남산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자원 발굴 및 노후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 서울 육경축의 중심인 남산의 생태자원 보존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휴식 및 여가공간의 조성을 통한 이용 활성화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를 추구함.
- 주요사업 : 접근로 개선, 보행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 관광활성화 시설 확충

열린남산 만들기 Accessible NAMSAN



○ 주요사업별 기본구상

- **접근로 개선** : 남산은 위치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위주의 도로기하 구조 및 보도, 횡단시설의 부족, 접근로에 대한 인지 미흡 등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되어 있음. 남산에 이르는 접근로들을 정비하여 남산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함.
 -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보행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이용자들의 보행편의 증진



<남산 접근로 개선>

소월길



반포로



<접근로 개선 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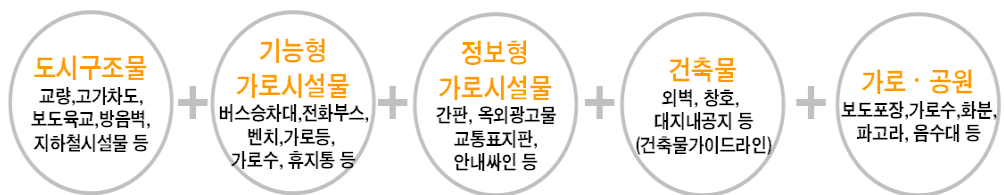
- **보행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 : 남산순환로(소파길, 소월길) 원래의 기능에 맞도록 통과차량을 배제하고 남산 접근차량만을 고려한 도로구조로 조정함. 또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 조성을 통하여 누구나 걷고 싶은 녹색문화 가로공원을 조성함.
 - 여유차로를 축소하여 수준 높은 녹색가로 조성
 - 보도 확보 및 단절구간 연결로 보행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 소파길 우선 시행 및 평가 후 소월길로 확대 검토
- **관광활성화 시설 확충** : 남산공원 내 시설물들의 물리적 노후화가 남산공원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짐에 따라 노후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매력 있는 유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남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 경사형 접근시설 및 시가지 조망시설 설치
 - 관광버스 공용주차장 조성 및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 진입계단 개선 및 서울 성곽 복원 검토

5. 후속계획 및 기대효과

1) 후속계획

- 도심 전반에 대해 후속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 계획 제안
- **도심 4축과 교차하는 청계천의 구역별 활성화 및 환경개선** : 청계천 일대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잠재력 증가로 지속적이고 높은 개발압력이 예상되며 남북 4대축과 교차되어 향후 도심부의 주요 결절부로서 역할을 할 것임. 이에 따라 구역별 특성화 및 환경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함.

- **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의 연계 : 강북지역에 밀집한 서울의 주요 대학이 가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기능과 도심의 업무, 산업 등의 중추기능 및 활력을 연계할 경우 상호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캠퍼스의 자원과 기업이 연계된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필요시설 등을 확보하는 시티캠퍼스, 그리고 노후건축물을 학생들의 작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티스튜디오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도심 디자인 업그레이드** : 세계 수준의 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선도사업으로서 도심부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도심 디자인 향상사업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함.



<도심 디자인 향상사업의 대상>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유도방향** : 도심부 내의 미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는 향후 도심부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거나 보완하고 부족한 공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활성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할 것임. 이러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가 도심부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지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업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세심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도심 교통체계 개편 방향** : 청계천 복원 이후 도심교통량이 감소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계기로 도심부를 자동차 위주에서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장기 정책을 검토함.

2) 기대효과

- 27개의 새로운 명소 창출 및 국제화, 관광화, 친문화, 첨단화의 기반 마련
- 도심재창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도심발전정책이 추진될 경우 “600년의 역사성과 다양한 기능 및 형태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걷고 싶은 거리와 매력적인 생활공간이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경제와 문화의 교류 중심지”로 변모하고자 하는 서울 도심의 미래비전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임.



<도심재창조 사업의 기대효과>

김선웅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041
swkim@sdi.re.kr